외교부

미·일·오·필의 '중국 위협론'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표명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일본·오스트랄리아·필리핀과 결탁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동해·남해 문제를 구실로 지역내 국가간 대립을 부추기고 선동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

미국 아태계 주민 과반수 2024년에 혐오 공격당해

2일, 미국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주민 혐오 중지 련맹'이 발표한 최신 조사보고는 미국 정객의 반이민 발언과 미국내 '날로 악화되는 체계적인 차별'로 인해 2024년 미국사회에서 아태계(아시아태평양계) 군체를 겨냥한 혐오 현상이 더한층 악화되였는바 "혐오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표한 아태계 주민이 과반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는 미국 현 정부의 반이민 의정의 추동하에 반이민 정서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아태계 군체를 상대로 한 혐오 공격을 부추기는 요소로 되였으며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심리는 계속하여 아태계 미국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는 "아태계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미국 거주 신분과 합법적 지위를 의심당하고 소란자들로부터 '너희가 왔던 곳으로 꺼져.'라는 고함을 들으면서 인종주의적 모욕을 당했다."며 일부 아태계 주민들의 관련 경력을 서술했다.

/ 신화넷

영국 재계 인사:

미국 관세정책, 기업의 주요 장애물

영국 재계 인사들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다국적 기업 경영의 '주요 장애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영국 특허수출·국제무역학회 총간사 마르코 포지온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중단하고 다시 부과했다가 또 인하했다. 최근에는 미국 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모든 것은 더 많은 불안정한 상황을 립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금융성리사회 회장이며 영중상업발전중심 주석인 존 맥리언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불확실성'이라면서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기업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지금은 완전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영국 기업의 수석집행관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과거에 미국 시장으로 향했던 많은 영국·유럽 브랜드들이 지금은 부득이하게 대체 시장을 찾으면서 중국 시장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국전자상거래 비용과 효률 우위는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더 큰 여지를 준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경제성장 전망 재차 하향 조정

6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올해 3월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각각 0.2% 포인트와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2.9%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몇달 동안 무역장벽과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하여 상업과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역과 투자를 저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국제 경제 및 무역 환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하여금 올해와 명년의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둔화가 두드러진 나라들로는 미국, 카나다, 메히꼬 등이다. 이중 미국은 2025년과 2026년 경제가 1.6%와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였는데 이는 올해 3월 예측치보다 각각 0.6% 포인트와 0.1%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 신화넷

영국 불법이민자 일일 최다 기록

불법이민자들이 영국에 도착하고 있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영국 내무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5월 31일 프랑스로부터 영국해협을 횡단하여 영국에 도착한 불법이민자가 총 1,194명에 달해 올해 일일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일, 영국 국방대신 힐리는 "지난 5년간 영국은 이미 변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표했다.

/ 신화넷

이재명, 한국 대통령 취임선서

'실용외교' 추진 의사 밝혀

6월 4일, 이재명이 한국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 신화넷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경 국회에서 공식 취임선서를 했다.

이재명은 취임사에서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실용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또 비상경제 전담반을 가동해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국회의장 등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취임선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이날 현지시간으로 6시 21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은 현지시간으로 8시 7분경 합참의장 김명수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중한 량국은 수천년간의 오랜 친선 교류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강한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수십년간 동반 성장을 이루었고 량국의 미래 협력 잠재성도 크다. 동북아시아지역 평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협력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이 말하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향후 5년간 어떤 변화와 성장을 이끌지 궁금하다. 새로운 '한국호'의 출발이 더 큰 도약을 향한 견실한 발걸음이 되고 중한 량국간의 내실있는 협력과 상생의 멋진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국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이는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다만 청와대 보수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은 청와대가 가장 적합한 집무 공간이라며 조속히 보수작업을 마친 뒤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대통령 관저로 언제 이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 권한 인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시작되였기 때문에 경호 및 시설 보수 등의 문제로 관저 이전 관련 사항을 확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대통령 관저 이전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화넷, 국제방송

이재명, 대통령 임기 공식 개시

6월 4일 새벽, 이재명이 부인 김혜경과 함께 서울 국회 앞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 신화넷

한국시간으로 6월 4일 오전 6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을 제21대 한국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 시작되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의 득표률은 49.42%,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의 득표률은 41.15%, 개혁신당 후보 이준석의 득표률은 8.34%를 기록했다.

한국은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3일 늦은 밤, 여러 한국 언론은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김문수는 4일 오전 1시 36분 패배를 인정하고 이재명에게 축하를 표했다.

6월 4일 새벽, 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을 찾아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면서 현재 최대 과제는 경제를 복구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과 조선간에 대화하고 공조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표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이 1987년 헌정개혁 이후 두번째로 대통령 궐위(缺位) 상태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선거 결과가 공식 확정된 대로 즉시 직무를 수행한다.

/ 신화넷

[심층해독]

이재명은 왜 이길 수 있었나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바 주로 세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을 바랐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수파 집권 후기에 나타난 혼란스러운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변화를 갈망하고 새 정권이 안정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한국 진보파의 대표로서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정서를 잘 받아안은 '인수자'가 되였다.

둘째, 지지 기반이 탄탄하고 중도층 표심을 효과적으로 장악했다. 이재명은 풀뿌리 출신으로 한국 력사상 최초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 후보이다. 이재명의 전략은 매우 명확했다. 바로 '국민통합' 카드를 강조하고 문제 해결의 실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사회의 분렬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정을 갈망하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된다.

셋째, 내정 및 외교 정책의 안정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어 이재명은 국가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재정자금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실용적인 외교를 주장하면서 외교의 다원화를 실현하여 미국, 일본, 로씨야 등 국가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지역 전략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반도 문제에서는 남북 군사 긴장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로부터 이재명이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분렬되여있는 한국 정치권과 사회의 도전에 직면한 이 신임 대통령의 '관문 돌파'의 길은 험난하고도 길다고 할 수 있다.

/ 신화넷

6월 3일 저녁, 직원들이 서울의 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신화넷